



기술·개발을 통해 축산기자재 국산화를 선언 세계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

글 | 정승일 기자(jsid@naver.com)

19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시설의 현대화를 이루지 못해 후진국 대열에 속해 있었다. 축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지만 대부분의 기자재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에서 농가들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현대화 시설을 갖추기 어려웠다.

또한 수입 기자재들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발된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 맞지 않는 제품들도 있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1992년 축산기자재의 현대화, 국산화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설의 현대화를 이끌어 국내 축산업을 발전키고, 현재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축산기자재 생산 업체가 있다.





급이통에 대해 설명하는 안광덕 대표



급수 니플을 설명하는 안광덕 대표



사무실 전경

축산기자재의 국산화 선언

삼우엔지니어링의 안광덕 대표는 1985년 천안연암대학 축산과를 졸업하고, 동물약품 업체에서 7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축산업과 관련된 약품, 기자재, 사료 등 모든 분야가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비싼가격 탓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농가들을 보면서 국내 축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축산기자재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평소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있었던 안광덕 대표는 과감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삼우엔지니어링을 설립해 2년여의 연구 개발 끝에 육계 급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순수한 국산 기술력으로 개발·생산한 양계 급이 시스템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제품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최고의 제품으로 고장이 없고, 가격과 제품, A/S 등에서 수입기자재보다 앞선다는 농가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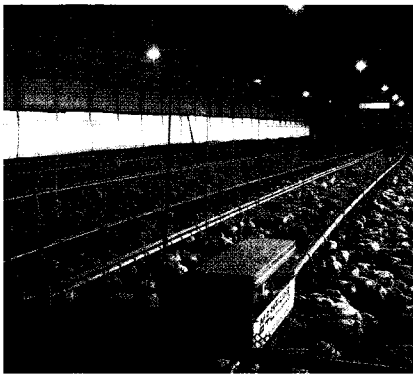
수입품의 단점을 보완한 완벽한 제품 생산

자신감을 얻은 안광덕 대표는 양돈, 낙농, 한우 등 축산 전 분야에 걸쳐 제품을 개발·생산했다. 국내 최초로 육계, 종계 Ø48, Ø60 자동 급이 시스템, 축사용 가축사료 제한 급이기, 가축사료 저장탱크용 연결호퍼, 분뇨시스템, 가금류 니플 시스템 등을 개발·생산해 본격적으로 축산기자재의 국산화, 세계화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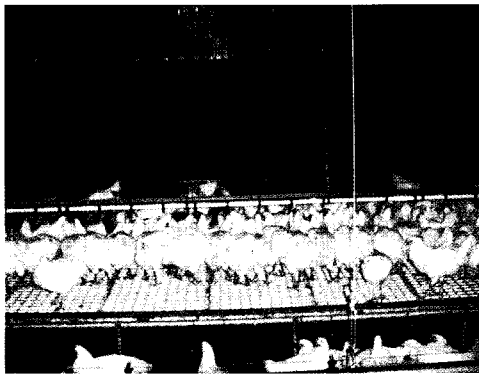
특히 가금 급수용 니플은 3년여 동안 많은 시행착오 끝에 연구 개발한 제품으로 급수량은 많으면서 누수가 없는 완벽한 제품으로 2006년 특허를 출원해 2007년 7월 2일 특허를 받았다.

급이 시스템은 와이어가 튼튼해 고장이 없으며 급이통은 사료 이송이 빠르고, 급이량 조절이 쉽고, 사료 허실이 없다. 또한 바닥판이 경첩식으로 개방되어 세척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발로 밟아도 깨지지 않는 특수한 재질로 개발했다.

안광덕 대표는 제품을 개발할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의 기술을 배제하고, 단점



육계급이·급수 시스템 설치사진



중계급수 시스템 설치사진



중계급이 시스템 설치사진

을 보완해 부품 하나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튼튼하고 완벽한 제품이 아니면 생산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는 특허품 20여 제품을 비롯해 축산 전 분야에 걸친 기자재를 국내 50여 대리점에 납품하고 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삼우엔지니어링

이렇게 제품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생산해 국내뿐만 아니라 호주, 중국, 베트남 등에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서 자사 제품에 더욱 자신이 생긴 안광덕 대표는 2002년 8월 중국에 천진삼우기계제조유한공사를 설립해 세계 시장에 뛰어 들었다.

중국 공장에서는 그동안의 기술력과 연구 개발을 통해 자동 급이기, 니플, 사료저장 탱크, 분뇨처리 시스템 등 양계 기자재뿐만 아니라 양돈, 낙농 등 축산 전 분야에 걸쳐 기자재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삼우엔지니어링의 제품 하나 하나는 유럽, 미국의 제품보다 품질,

가격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 러시아, 동남아, 일본 등에 제품을 수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제품을 수출해 축산업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에는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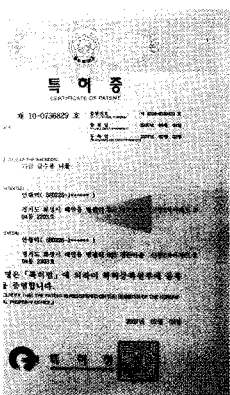
세계 시장을 향한 끊임없는 연구·개발

안광덕 대표는 인재육성을 통해 최고의 기술력을 이용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경영철학으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실정에 맞는 국산 제품이 있는데 아직도 수입품만을 고집하는 우리나라 축산업자들이 있다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한 삼우엔지니어링의 기술력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본다.

• 홈페이지 : (www.samwoo-eng.com)



가금 급수용 니플 특허증